

違法人類

CALAMITY ZONE

SIGNATURE

캐치프레이즈

“창시의 야장”

한마디

“3일. 늦으면 폐기하고 다음 것 시작 할 거다.”

APPEARANCE



직접 제작

HEIGHT / WEIGHT

148 cm / 110 kg

외관 설명



전신 의상. 고글과 허리춤의 보조 주머니는 임무에 나가거나 작업 시 착용.



목의 문양.



PROFILE

NAME	월룬드르	CODENAME	대장장이
AGE	45	SPECIES	용
NATIONALITY	법적 국적 미상	ALIGNMENT	HERO

PERSONALITY

알았으니까 놓고 꺼져.

그는 작업을 방해 받는 것을 싫어한다. 애초에 일평생 설계도라는 것을 써본 적이 없는 그는 머릿 속에서 모든 것을 구상하고 바로 작업하는데- 당신이 말을 건다고 생각해 보라, 무척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의 입은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당신을 향해 까칠하게 노릴것이다. 최소한 집중할 때, 그는 당신이 있기를 바라지 않겠지.

할 게 그렇게 없냐? 이거라도 하고 있던가.

말은 까칠하지만 최소한 무기가 관련되었거나- 당신의 목숨이 관련되었다면 어느 정도는 친절해 질 터이다.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당신을 그렇게까지 싫어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일단 최소한 그렇게까지 바쁘지 않을때에는- 뒤에서 당신이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 대하듯 당신에게 자신이 어릴 적 자주 가지고 연습하던 대장장이 키트라도 주던가 할 테다. 물론 이 행동은 당신의 시선이 거슬려서 일 것이다.

... 그 무기가 누구 손에 쥐여지던 내 알바는 아냐.

히어로지만 의뢰를 가려받진 않는다. 애초에 비소속이니까. 물론 악의를 다분히 가지고 찾아 온 사람에게는 응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2차적으로 거쳐 의뢰한다면 그도 알아챌 수는 없는 법. 애초에 먹고 살아야 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자신이 알아 챌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므로 그러려니 하고있다.

ALIGNMENT

히어로 면허	정식면허
--------	------

전문 분야	지원
직업	대장장이
인지도	★☆☆☆☆

ABILITY

이능력명

케나즈-투리샤즈

능력 개요

케나즈

부품 및 무기 창조.

대장장이라는 이명 답게 부품과 무기를 창조해 낼 수 있다. 다만, 만능은 아닌지라 엄청나게 복잡한 무기는 만들려 하면 머리에 과부하가 온다.

능력과는 별개로 자신의 대장장이 실력 또한 출중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품을 일일이 제작 한 뒤, 후에 조립하는 식으로 제작하는 일이 다재하다.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선 주기적으로 해당하는 소재를 몸에 축적해두어야 한다. 주로 섭취를 통해 보충하지만 섭취라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수혈하는 것 처럼 보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신체 내에서 녹여야 하므로 주기적으로 석탄도 섭취한다.

투리스즈

추가능력 부여.

어릴적부터 망치를 두들기고 끌망치와 끌로 장식을 세공한 끝에 알아낸 섬세한 기술.

자신이 능력으로 만들어 낸 부품과 무기에만 미약한 추가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 - 맞은 대상의 출혈이 살짝 잘 멎지 않게됨

↘ - 무기가 살짝 가벼워짐

↑ - 탄환 착탄이 조금 빨라짐

↗ - 내구성이 조금 올라감

조금이라도 문양의 모양이 틀어지면 그대로 부품이나 무기가 깨진다. 그로 인해 주로 남이 의뢰한 제작 무기에 추가로 굳이 의뢰한다면 해주거나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정도.

조건과 한계

케나즈

능력으로 제작중에는 온 집중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도 할 수 없다. 간단한 구조라면 5분,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몇시간까지. 거기에 제작할 수 있는 최대 크기는 골판지 상자에 들어 갈 수 있을 만한 정도.

원한다면 억지로 빠르게 생산해 낼 순 있지만 집중을 쏟는 것은 여전하며, 전투 시라면 큰 공백을 만들게 된다. 그렇게 리스크를 안고 만들어진 무구 또한 한 합을 주고 받으면 바스러질 정도의 내구도를 가진다. 무리해서 연속으로 사용 할 경우 과집중으로 뇌에 무리가 간다.

또한 전투는 완전히 자신의 신체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무력을 지닌 상대라면 준비된 모든 수단이 다 떨어진 경우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물론 그 경우가 아니더라도 미리 준비한 무구가 다 떨어지면 급격하게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투리사즈

전투중에는 각인이 불가능하다.

준비한 물량이 떨어지면 그대로 끝.

또한 상승폭은 5%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아 리스크에 비해 리턴이 그닥 높은 편은 아니다.

대응 방법

대응은 간단하다. 전투중이라면 신체 내에 있는 소재가 고갈될 때 까지 장기전을 치루거나 전투 중 급히 추가적으로 무구를 보충할 때, 혹은 압도적인 무력으로 제압 한 뒤, 독방에 가두면 된다.

전투중이 아니라면 제작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제압하면 된다.

RESPONSE GRADE

C

TRIVIA

Q. 뉴 센티넬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나요?

“내 인생 최고의 무기.”

이제 가라.

뜨거운 불 앞에 앉은 월룬드르는 다시 망치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기타 설정

그는 같은 처지의 아이들보다는 제법 운 좋은 유아기를 보냈다.

제법 괜찮은 어른, 제법 괜찮은 친구, 제법 괜찮은 환경, 그가 처한 상황에서는 크나큰 행운이었다고
장담할 만큼.

부모의 얼굴은 몰랐지만 자신을 돌봐주는 부모격의 스승- 물론 불 앞에 설 때는 엄격했지만서도,
자상했으며 그에 더해 친구들은 그를 편견없이 받아주었다.

어릴 적 부터 대장장이질에 큰 소질을 보였다. 그 스스로가 일에 큰 흥미가 있기도 했다만은.

망치를 잡을 수 있을 때 부터 그는 대장장이 일을 해왔다. 쉴 때에는 폐기장에서 스승의 고철 모으는
일을 도왔다.

사춘기 때는 가끔 스승이 자신의 능력 때문에 저를 거둔게 아닌가 하고 싸울 때도 있었으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금방이었다.

1년, 2년, 햇수는 금방 지나 차곡차곡 쌓여 그의 경험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재능은 그의 스승이 생각한 대로 스승을 뛰어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의 스승은 특이한 사람이었다.

폐기장 근처의 지역은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있는 지역은 절대 아니었다. 물론, 무장강도에 빌런 아지트가 널려있는 그런 수상쩍은 곳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지역이었으니까.

그럼에도 그의 스승은 어울리지 않게 그를 구했고, 키웠으며, 범죄의 길에 빠지지 않고 올곧게 대장장이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었다.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이 구석진 곳까지 홀러 들어와서 까지도 말이다.

그가 성인이 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그의 스승은 그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하지만 애도할 시간은 없었다.

그는 스승이 남겨준 마지막 과제를 끝내야 했다.

그 후로 그는 철을 두드리는 것에 열중했다.

철을 두드리지 않을 때에는 목표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했다.

누군지 모르는, 정확히는 관심조차 없을- 이의 의뢰를 받아 돈을 총당하거나, 쓸만한 소재를 구하러 다니거나, 다양한 무구들을 연구한다던가 하는 일들을 해냈다.

면허 또한 활동하기 상대적으로 활동하기 쉬워지니 땀을 뿐이지, 사실상 그는 히어로로서 불릴 무언가는
절대로 아니었다.

지금도 그는 단순하게 매 시 매 초 철을 두드리는 평범한 야장일 뿐이다.

버릇

간식마냥 다양한 금속을 막대모양으로 주조해 들고다니며 씹고다닌다. 일반인이 느끼는 맛이랑 약간
다르게 느끼는 듯 하다.

그중 가장 좋아하는 금속은 금. 개인적인 견해로는 금이 제일 달다고 한다. 제일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리.

그 외

끼니를 자주 거르는 편이다. 작업에 열중해 식사 할 시간을 놓치고 다시 작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편.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자신이 만들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어느정도 다룰 줄 안다. 물론 전문적으로
다루는 무장들의 실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소지금이 모자라 의뢰를 해결하는 것이나 생필품을 사러 나가는것이 아닌 이상, 사회와 척을 지고
살아가기에 대개 바깥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작업하며 옆에 틀어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큼직한 것들이 전부인지라 유행에는 둔감한 편이다.

OWNER

수위 가능 여부 [필수]

[O]

선호 포지션 [필수]

[B]

캐릭터 선호	X
오너 선호	기피 외. 모든 플레이 전 컨택 부탁드립니다.
캐릭터 기피	비위생적 플레이, 하드 고어
오너 기피	브라운, 유아 퇴행, 뜬금없는 수위. 고어의 경우 조율 가능

오너 연락처 [필수]

[Discord - @tm_ninety_five]